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학교 및 장애 특성을 중심으로

이은순*,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Focused on school and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Eun-Soon Lee*, Sang-yong Yoon**

ph. D. Candidate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관적건강상태, 차별경험 등 학교 및 장애 특성 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집단 간 평균비교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정도 등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지원 프로그램 도입, 특수학급 증설, 보조인력,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학교생활적응, 장애 아동, 장애 학생,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관적건강상태, 소득, 생활만족도, 차별경험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evidence needed to establish plans to help disabled children and youth adapt to school by analyzing factors to influ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To accomplish this goal, raw data of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4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utilized for analysis to identify determining factors among level of school, type of school, type of disability, severity of disability, subjective health statu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disabl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Level of school, type of school and severity of disability are influencing factors on disabl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peer support programs and expansion of special class and auxiliary personnel are needed to assist disabled student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Disabled Childr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vel of School, School Type, Disability type, Severity of Disability,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Life Satisfac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Received 12 August 2016, Revised 12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Yoon-Sang-Yong
(Associate professo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syoon@chungbu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인간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화되어 간다. 인간 성장 발달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학업적 능력을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유형과 특성들로 인해 학업적 수행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기 쉽기 때문이다[2,3]. 또한 장애학생들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학교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3,6]. 특히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밖의 환경을 접하는데 제한적이고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장애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8,9,10], 부모의 이혼, 갈등, 양육태도, 소득과 같은 가정환경적 변인도 일반 및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11,12,13,14], 교사나 또래와 같은 사회적지지는 일반 및 장애 학생들의 심리 및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6,9,11,15,16,17,18]. 이와 같은 변인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학교

및 장애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학교생활 적응에서 연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은 더 복잡한 학습 환경을 갖는다[5].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습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담임제인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담임제인 중·고등학교는 더 많은 담임과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유형 또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학교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부분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 특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부분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은 각각 교육받는 환경적 요인이 다르므로 적응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김과 박[11]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는 연구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형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어떠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고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관적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없고, 소득과 관련해서는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아동에 대한 연구이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14]. 생활만족도는 소득과 관련한 연구가 있으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8]. 또한 차별경험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교사나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9,11,15,16,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차별경험, 주관적건강상태 등 학교 및 장애특성 요인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19]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자료는 2014년 8월 29일~2014년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및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가 대리응답을 하였으며,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로 부터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 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 추출하였다. 가중치를 제외한 전국 실태 본수는 6,824명이며, 이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변수

2.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교 특성 요인으로서 학교급별, 학교유형을 장애 특성 요인으로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 주관적건강상태,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 요인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분하였고, 학교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구분하였으며, 주된 장애유형은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로 구분하였다. 신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안면장애를 포함하였고, 감각장애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를 포함하였으며,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하였다. 장애정도는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이며, 역코딩 처리하여 '매우 나쁨', '나쁨', '보통', ' 좋음', '매우 좋음',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느끼는 것이다. 차별경험은 학교생활 차별로 교사, 또래 학생, 학부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구분하였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현재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십니까?'로 4점 척도로 되어있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순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교급별, 학교유형, 주된장애유형, 장애정도, 차별요인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차별은 기술통계를 하였고, 독립변수들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역코딩 처리 했고,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alpha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학교급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31.5%,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34.0%,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34.5%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교유형에서는 '일반학교' 27.9%, '특수학급' 39.6%, '특수학교' 32.5%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 20.3%, '감각장애' 14.7%, '정신적장애' 65.0%로 정신적 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장애 등급은 '경증'이 12.7%, '중증'이 87.3% 였다. 차별요인에서는 '교사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8%, '또래차별'을 받은 경우가 52.3%, '학부모차별'을 받은 경우가 19.3%로 또래로부터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 40.1%, '보통' 36.0%, '나쁨' 12.2%, '매우 좋음' 77.1%, '매우나쁨' 4.6% 순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62.4% 였고, '여자'는 37.6% 였다. 생활만족도는 '약간만족'이 50.8%, '약간불만족' 33.4%, '매우만족' 11.2%, '매우불만족' 4.6%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62	31.5%	
	Middle School	67	34.0%	
	High School	68	34.5%	
	Total	129	65.5	
School Type	Regular school	55	27.9%	
	Special Class	78	39.6%	
	Special School	64	32.5%	
	Total	129	65.5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40	20.3%	
	Sensory defect	29	14.7%	
	mental disorder	128	65.0%	
	Total	129	65.5	
Disability level	mild	25	12.7%	
	Severe	172	87.3%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41	20.8%	
	Yes	156	79.2%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103	52.3%	
	Yes	94	47.7%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38	19.3%	
	Yes	159	80.7%	
	Total	129	65.5	
Self-assessment of health	Very Poor	9	4.6%	
	Bad	24	12.2%	
	usually	71	36.0%	
	good	79	40.1%	
	Very Good	14	7.1%	
	Total	340	172.6	
Gender	Male	123	62.4%	
	Female	74	37.6%	
	Total	129	65.5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9	4.6%	
	Somewhat dissatisfied	66	33.4%	
	Somewhat satisfied	100	50.8%	
	very good	22	11.2%	
	Total	326	165.5	
Household Income (M,SD,min/max, 단위:백만원)		2.97	2.10	0.22/20.00

3.2 장애정도, 차별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T-test 결과

장애정도, 차별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장애정도에서는 t값이 3.250, df는 195, P-value 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경증에 대한 적응도 평균이 더 높으므로 중증과 경증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경험에서는 교사에게 차별을 안 받은 경우가 3.468, 받은 경우가 3.171로 안 받은 경우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에게 차별을 안 받은 경우가 3.464, 받은 경우가 3.379로 안 받은 경우보다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게 차별을 안 받은 경우가 3.421, 받은 경우가 3.342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test results on school adjustment

Variables		M	SD	t	df	P
Disability level	mild	4.520	2.631	3.250	195	0.001***
	Severe	3.244	1.692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3.468	1.902	0.901	195	0.369
	Yes	3.171	1.787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3.464	1.811	0.215	195	0.831
	Yes	3.379	1.94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3.421	1.840	0.233	195	0.816
	Yes	3.342	2.057			

* p<0.05, ** p<0.01, *** p<0.001

3.3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F-test 결과

각 학교급별로 적응도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 F=3.829, df=2, P-value=0.02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므로 학교급별로 학교생활 적응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평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3.794, 중학교가 3.478, 초등학교가 2.9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F=2.855, df=2, P-value=0.06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고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은 일반학급이 3.891, 특수학교가 3.344, 특수학급이 3.11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F=1.870, df=2, P-value=0.1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정신적장애가 6.313, 감각장애가 3.699, 신체장애가 2.9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별, 학교유형에 따른 적응에는 차이가 있으나 장애유형은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F-test results on school adjustment

	Variables	M	SD	F	df	p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2.903	0.987	3.829	2	0.023*
	Middle School	3.478	1.845			
	High School	3.794	2.385			
School type	Regular school	3.891	2.200	2.855	2	0.060*
	Special Class	3.115	1.651			
	Special School	3.344	1.784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2.925	3.778	1.870	2	0.157
	Sensory defect	3.699	0.761			
	mental disorder	6.313	0.498			

* p<0.05, ** p<0.01, *** p<0.001

3.4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검정 결과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the multiple affecting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Variables	B	S.E	p
School Variables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0 ^a	-
		Middle School	0.593	0.310 0.056*
		High School	0.850	0.314 0.007**
	School type	Regular school	0 ^a	-
		Special Class	-0.179	0.349 0.607
		Special School	0.121	0.384 0.753
Disability Variables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0 ^a	-
		Sensory defect	-0.108	0.459 0.814
		mental disorder	-0.172	0.350 0.624
	Disability level	mild	0 ^a	-
		Severe	-1.240	0.488 0.011*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0 ^a	-
		Yes	-0.148	0.335 0.659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0 ^a	-
		Yes	-0.077	0.285 0.786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0 ^a	-
		Yes	0.299	0.360 0.407
	Self-assessment of health		0.078	0.147 0.595
Control Variables	Gender	Male	0 ^a	-
		Female	-0.030	0.267 0.910
	Household Income		-0.136	0.605 0.025*
	Life Satisfaction		0.440	0.193 0.022*

* p<0.05, ** p<0.01, *** p<0.001

주요변수들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분석결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는 학교급별, 장애정도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추정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적응도가 더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적응도가 높다. 이를 토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적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는 중증의 추정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경증보다 중증의 적응도가 더 낮게 나타나 경증 학생이 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관적건강상태, 차별경험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정도 등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1]의 연구결과와 다르나, 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유형은 통계적으로는 약간 못미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결과 값이 0.060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학급을 더 많이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는 김과 박[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장애정도는 경증에 대한 적응도 평균이 더 높으므로 중증보다 경증일 때 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증 학생들의 경우 학습능력이나 행동차원, 교우 관계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중증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제한점으로 인해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중 지역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역적인 특성을 볼 수가 없었고, 보고자 하는 변수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전국데이터로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장애학생을 학교급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관적건강상태, 차별경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유형의 다양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적응도가 낮은 저학년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또래 관계와 친구 지지 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11,20,21] 또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외 연구에서 'peer buddy', 'Peer support'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는 '또래 지원'을 예로 들 수 있다[22,23]. 즉 일반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의 튜터 역할을 하며 학업성취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23,24],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4,25,26]. 또한 일반학교 보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적응도가 더 높으므로 특수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경증보다 중학 학생들의 적응도가 더 낮으므로 중증 학생들에 대한 보조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to maladjustment of special-care class children", Ewha Women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2] B. Y. Kim, S. H. Park, "Effects of Instructional Adaptations on the Problem Behaviors and Task Engagement Behavior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Inclusive Classrooms",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42 No.1, pp. 19-49, 2008.
- [3] S. R. Lee, S. H. Park, "Teachers' and Peers' Perception of the Priority Social Skills Required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nclusive Middle School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Research, Vol. 23, No. 3, pp. 233-263, 2007.
- [4]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3, No. 3, pp. 542-557, 1992.
- [5] Wenz-gross, M., & Siperstein, G. N.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Vol.. 63, No. 2, pp. 183-193, 1997.
- [6] Y. S. Lee, Influence of self-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handicaps : Focus on middle school aged students placed special class of regular schools, Ewha Women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 [7] J. S. Lee,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4, No. 2, pp. 21-43, 2013.
- [8] D. I. Kim, K. S. Kim, J. H. Lee, S. R. Jeong, "Study about Adjustment to School Environment for Adolescents Who Hav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y : Focusing on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Self-efficiency",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2, pp. 269-292, 2014.
- [9] S. J. Park,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287-293, 2016.
- [10] H. K. Kim, "The influence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general high school

- students", Kyung 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sis, 2008.
- [11] D. H. Kim, S. H. Park, "Comparis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Students in Special Classe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7, No. 1, pp. 145-172, 2008.
- [12] M. S. Oh,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83-188, 2016.
- [13] M.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 [14] H. J. Kim,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A Comparative Study of Poor and Non-poor Childre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No. 20, pp. 1-22, 2011.
- [15] J. B. Kim,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6, No. 2, pp. 25-48, 2009.
- [16] K. H. Boo, S. S. Chang, "The Effect Of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Maladjustive behavior of the handicapped in special classroo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3, pp. 449-463, 2004.
- [17]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to maladjustment of special-care class children", Ewha Women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18] J. H.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1, pp. 503-514, 2015.
-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2014 Survey of Disability
- [20] M. H. Le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Disabled Youth's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the mediated",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21] E. 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 special class children's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Kong 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22] Jackson, J. N., & Campbell, J. M. "Teacher's peer buddy selections for children with autism: Soci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with peer nomina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39, No. 2, pp. 269-277, 2009.
- [23] Janney, R., & Snell, M. E., Social relationships and peer support(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2006.
- [24] J. M. Song, "The effects of homework buddy program on homework completion and social studies achievement of elementar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Ewha Wome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25] S. H. Choi, "A Study on Effectiveness of Peer Supportive Network to Enhance the Peer Relationship of the Disabled Students in a Special Class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18, No. 1, pp. 213-243, 2001.
- [26] Laushey, K. M., & Heflin, J., "Enhancing social skills of kindergarten children with autism through the training of multiple peers as tuto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30, No. 3, pp. 183-193, 2000.
- 이 은 순(Lee, Eun soon)
- 
- 2009년 2월 : 충북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장애, 부모교육, 발달
 - E-Mail : beauty-71@hanmail.net
- 윤 상 용(Yoon, Sang yong)
- 
- 2003년 2월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빈곤, 장애인복지, 근로연계복지
 - E-Mail : syoon@cbsnu.ac.kr